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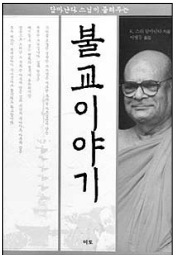
### 담마나다 스님의 눈높이 불교입문서

“인간은 달에 상륙하고 우주의 불가사의한 일들을 발견해 낼 정도로 영리하지만, 아직 자기 마음의 내적 작용에 대해서는 더 많은 탐구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개발해서 인생의 진실한 본성을 깨달을 수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1964년 처음 출간돼 이미 16개 언어로 번역됐고 네 차례나 개정판을 거듭한 이 책이 오늘날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50여년이 넘게 포교현장을 지켜온 담마나다 스님의 경험에서 우러난 주옥같은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12살 때인 1931년 출가한 후 포교를 위해 말레이시아에 파견되어 해외포교에 앞장 서 온 담마나다 스님은 불교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실천적인 종교인지 설명하기 위해 불교입문서 <불교 이야기>를 쓰게 됐다. 그동안 책은 편이 거듭될수록 신자들이 자주 찾는 ‘불교는 이론인가 철학인가’ 불교는 무신론인가’ 등의 질문이 추가되어 출간 당시에 비해 두 배 이상 두꺼워졌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철저한 신도들의 눈높이에 맞춰 불교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불교를 불교이론으로만 설명해 더욱 설명이 난해해지는 방식에서 탈피해 플라톤, 버트런드 러셀, 셰익스피어 등 세계적인 철학자들과 대문호들의 문장에서부터 뉴턴과 아인슈타인 등 과학자들의 이론들을 동원해 불교를 설명한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다. 스님은 여기서 무조건적인 찬탄과 존경이 아닌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후반부인 3부~6부에서는 기도와 선정을 비롯한 불교수행의 내용과 함께 결혼과 가정생활, 전쟁과 폭력, 국가와 개인 등 일상의 삶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점점 화려해져가는 불교의례에 대한 비판과 여성의 지위변화 등 오늘날 승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찰도 담겨 있다. **여수령 기자**



불교이야기 담마나다 지음 이병두 옮김 미도 | 1만9천원

## 혜초 스님 좇아 부르는 ‘번뇌의 노래’

### ‘왕오천축국전’ 여정따라 삶의 근원 추구



“나는/태어나지도 않았고/살지도 않았다/따라서 죽는다는 것도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나는/태어나서/살았으며/그리고 죽는다” (‘금강경에 부처’ 전문)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마지막 장까지 단숨에 읽히는 시집은 흔히 읽는다. 시인이자 출판인인 박진숙(47·작가정신 대표·사진) 씨가 14년간의 침묵을 깨고 펴낸 <혜초일기>는

108편이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시집에는 신라 혜초 스님이 서역을 여행한 후 지은 <왕오천축국전>에 나타나는 순례 길을 좇으며 삶의 근원과 진리 그리고 불법(佛法)을 추구하는 시들이 ‘한 호흡’으로 묶여 있다.

<왕오천축국전>을 읽어 본 이라면 시 곳곳에 숨겨진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겠지만, 읽지 않았다 해도 상관없다.

‘불교’라는 걸음을 입고 있지만 전문용어를 배제한 일상의 언어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인이 이 시를 17년간 썼다는 사실이나, 실제로 <왕오천축국전>의 여정을 따라 여행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해도 시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구경”과 <숫타니파타>를 읽으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마음이 열렸다”고 말하는 시인은 86년 <왕오천축국전>을 접하고 “내 인생의 궤적과 혜초 스님의 발자취가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시인은 “<왕오천축국전>에 시작하기를 붙여넣고 싶다”는 마음에 혜초

스님의 구법 여정에 자신의 발을 들여 놓게 됐다.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서/영혼의 은빛 꼭대기를 향해/땀을 흘리고 가슴을 찢으며 숨겨진/전율”(출발의 노래’ 전문)

그 후로 ‘더디지만 꾸준한’ 순례가 시작됐다. 마치 ‘누에고치가 실을 빼듯’ 시가 나왔다.

한 달에 고작 한 편을 쓸 때도 있었지만, 여정이 중도에 그치지 않을 까 하는 염려는 없었다. 그렇게 시인은 혜초 스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부처가 되고 때로는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이 되어 그들의 눈과 입을 빌어 노래한다.

“혜초 스님은 순례 길에 보고 들은 것을 자신의 가치판단 없이 그대로 기술해 두었죠. 이런 ‘열린’ 기록이 시인으로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선적(禪的)’이라거나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는 데는 무척 조심스러웠다.

“제 시는 깨달음의 노래가 아닌 ‘번뇌의 노래’입니다. 깊은 수행에



혜초일기 박진숙 시집 문학세계사 6천원

서 나오는 깨달음의 시를 ‘오도송’이라고 한다면, 시는 결국 삶을 노래하는 번뇌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평론가 이남호 교수(고려대)는 <혜초일기>의 미덕으로 ‘진정성’을 꼽는다. 이 교수는 “세상과 삶의 이치에 대한 <혜초일기>의 지적 사유들은 가벼운 아포리즘들이 범접할 수 없는 진정성에 닿아 있다”며 “이 시집은 종교적 주제나 소재를 지닌 많은 시집들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길을 걸으며 길 위의 것들을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옮겨놓는 듯한 이 시의 종착점은 순례를 처음 시작하던 바로 그 마음자리다. 마치 삶이 시작과 끝이 따로 없는 법륜이듯이.

“나는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았고/아무것도 보지 않았고/길 위에서/모든 것은 끝났다/나는 그 누구도 무엇도 아니다이순간”(‘대문사의 아궁이’ 卍)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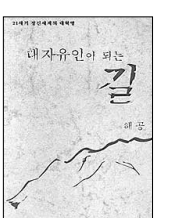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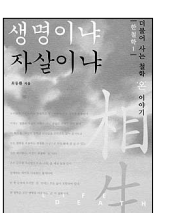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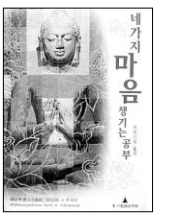
### 새로 나온 책

■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각목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회, 1만원)=지난해 출간된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의 개정판. 초기불교 수행법을 ‘몸’ ‘느낌’ ‘마음’ ‘법’의 네 가지 주제로 집대성한 <대념처경>과 그 주석서를 번역한 책이다.

■ <생명이냐 자살이냐> (최동환 지음, 지혜의나무, 2만원)=20여년간 ‘한사상’을 연구해 온 최동환 씨가 여러 사상가들의 주장을 ‘한철학’으로 비교 분석한다. 지은이는 긍정과 상상, 공생의 방법인 ‘은 철학’으로 우리의 사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 <무속화> (가회박물관 엮음, 재미마주, 1만8천원)=우리나라 무속세계의 실체를 무속화를 통해 살펴보는 화집. 민화 전문박물관인 가회박물관이 엮은 이 책에는 삼불제사, 오방신장, 산신 등 186점의 무속화에서 엄선한 작품이 담겨 있다. 인간사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며 신앙의 대상이 됐던 각 지역 무신들의 다채로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 <대자유인이 되는 길> (해공 지음, 다다, 1만원)=지은이가 미안마 수행을 마치고 돌아와 제자들에게 명상을 지도하면서 일주일에 4~5시간씩 강론한 내용을 담은 강의록과 먼저 쓴 글에서 핵심을 뽑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 우리 안의 티베트를 찾아서



티베트 문화산책 글/사진 김규현 | 정신세계사 | 1만8천원

티베트와 한 반도는 거리는 수만 리 떨어져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질적인 문화권에 속해 있다. 하지만 10여년동안 티베트 관련 연구와 저술 활동에 매진해 온 지은이에 따르면 두 나라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 받았다.

예를 들면 미숫가루, 육포, 순대 등의 음식에서부터, 오색 색동문양 등의 의복, ‘선녀와 나무꾼’ ‘장화홍련’ 등과 같은 민간설화 등에서 확인되듯이 문화 전반에 걸쳐 티베트와 연결고리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우리 안의 티베트’를 화두삼아 그들의 문화를 구성요소 탐색하는 티베트 문화 여

행기이다. 1부는 티베트 최대의 페스티벌인 ‘쇼판’ (일명 요구르트축제)과 연극의 신이라 불리는 승려 ‘탕돈 갈보(Thangton Gyalpo:다리를 놓는 고승)’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이외에도 티베트연극 ‘아체라모’를 중심으로 연극이 어떻게 가장 대중적인 서민 놀이문화가 되었는지도 알아본다.

2부는 탕카(탱화)와 벽화, 조소, 목판화 등 티베트의 회화예술을 소개하고 그 역사와 밀교예술에 대해서도 짚는다.

3부에서는 문화대국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여전히 고유의 색깔을 유지하고 있는 티베트의 춤과 노래, 음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김주임 기자 jkim@buddhapia.com**

### 10가지 주제로 본 백제의 美



백제 최후 1231년 박종일 지음 | 화남 | 9천5백원

538년부터 660년까지 123년 동안 백제의 수도이자 마지막 도읍지였던 충남 부여. <백제 최후 1231년>은 부여에 대한 문학 지리서이자 백제의 숨결을 더듬어 가는 역사 기행문이다.

부여가 고향인 지은이는 “적막 속으로 사라진 백제에 대한 것들을 기억이 찾아내 쓰고 싶었다”고 말한다. 지은이는 백제의 아름다움을 강, 돌, 소박(素朴), 웃음, 한(恨), 곡선, 삼라만상, 해학 등 10가지로 찾아내 스크린 역사 속에서 길어 올린다.

금강에 대한 단상을 ‘슬픔, 슬픔으로 흐르는 열굴이여’라는 부제로 풀어진 글에서 지은이는 문화강국 백제의 패망 역사를 담담하게 써내려

간다. 이를 위해 <일문서기>를 참고하는 것은 물론 ‘산유화가품앗이할 때 부르는 노동요’, ‘신경림의 시 ‘갈대’ 등을 자유롭게 인용한다.

‘웃음’에 대해 쓴 ‘천년의 미소를 돌아본다’라는 글에서는 금동반가사유상의 백제 제작설과 백제시대 미특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반가사유상의 미소에서 아지러운 시대를 살았던 백제인들의 염원을 읽어낸다. 그 밖에 도정사지 5층 석탑에서는 백제의 ‘소박’한 미를, 주조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백제금동대향로에서는 ‘삼라만상’을 발견한다.

“아쉽고 그럼겠지만 백제에 대한 연민을 나는 이제 그만 버리고 싶다. 그대야말로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것만 같다”는 지은이의 고백에서 오히려 백제에 대한 버릴 수 없는 애정이 느껴진다. **이은비 기자 reny@buddhapia.com**

###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역시아름답게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오래된지	한경혜	반디미디어
2	선 너는 누구나	현대불교신문	여시야 문
3	출로시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4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정화 스님	이론아침
5	왜 사는가	무량 스님	열림원
6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도법 스님	아름다운연
7	용서	달라이 라마	오래된미래
8	서장	전재강	운주사
9	선방가는 길	정찬주	열림원
10	해탈의 길	성철 스님	장경각

도서 안내: (02)737-0695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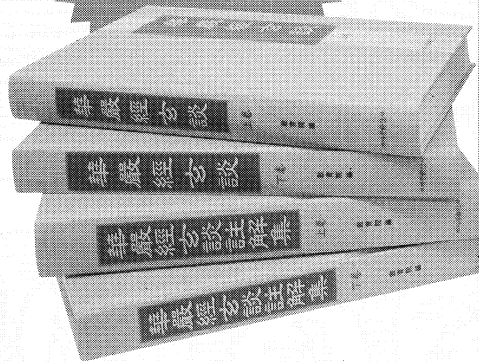
역겹의 재능을 통쾌하게 씻어주는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제권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 불교의 최고봉인 화엄, 그 화엄의 정수를 담은 화엄경현담이 새롭게 재출간되었습니다

한글 화엄경현담의 결정판!



- 불교를 공부하는 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화엄의 세계, 그 완벽한 모습이 알기 쉽게 출간되었습니다.
- 국한문을 병기하여 한글과 한문으로 동시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화엄경현담 주해집도 첨부되어 화엄은 물론 불교가 폭넓게 설명되었습니다.
- 4×6배판 양장제본 케이스

구입 | 각권 35,000원 / 전4권 140,000원  
신청 즉시 택배로 운송해 드립니다.  
승금계좌번호 | 농협 053-01-254866 (재)대한불교조계종  
국민은행 765-01-0017-288 (재)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 출판사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45  
전화 (02)2011-1880-1  
팩스 (02)720-6019

### 한국불교와 승단에 던지는 도법 스님의 절절한 신앙고백

승가(僧伽)의 개인주의와 안이한 수행풍토 등 현대한국불교의 문제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한다. - 조선일보  
그의 불교비판은 신랄하지만 더없이 진지하다. - 중앙일보  
'지금 여기를 도의시대 해상과 욕망만을 쫓는 관념에 대한 일갈. - 한겨레  
한국불교와 승단을 향한 자성의 울림이자 뼈아픈 교백이다. - 한국일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도법 지음 | 신국판 | 384면 | 값 11,000원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45번지 | Tel. 02-2011-1880-1 | Fax. 02-720-6019  
아름다운 인연은 조계종 출판사의 자처사입니다.

